

## ★ 튀르키예어 (Türkçe/투르크체)

터키, 투르크, 튀르키예 등으로 불리며 8800만명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1928년 이전까지는 아랍문자로 된 Ottoman turkish script를 사용하다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투르크체 현대화 과정에서 아랍문자를 라틴알파벳으로 바꾸는 Latinization을 통해 비교적 최근에 문자가 한번 정비되었다. 튀르키예 알파벳을 훈민정음으로 옮겨보면 부가된 IPA적 설명보다 오히려 명료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turkish-i 또는 점없는 i라고 부르는 [ɯ]는 정음 'ㅡ'가 되고, ğ[ø/ɣ]는 음가없음<sup>79)</sup> 또는 단어에 따라 [j]로 발음된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정음 ㅎ로 치환해보면 더 깔끔하게 설명된다. 모음나침반에서 ㅎ는 년중 가장 낮이 짧은 동지로서 음절의 패쇄를 뜻하고, IPA 자음표에서는 glottal stop[ʔ]으로 종성에 ㅎ이 오면, 한글자씩 또박또박 끊어읽기가 된다. 이것을 IPA체계에서는 değil [de.ɯ] eğri [ej.ɾi]로 점을 찍어 휴지기가 있음을 표기하는데, 정음에서는 değil [데일·데일] eğri [에히리]로 표기되어 더 명쾌하다.

Aa	ㅏ	Bb	ㅑ	Cc	ㅓ	Çç	ㅕ	Dd	ㅗ	Ee	ㅓ ㅗ	Ff	ㅜ	Gg	ㄱ 기
Ğğ	ㅎ	Hh	ㅎ	İ i	ㅡ	İ i	ㅣ	Jj	ㅓ	Kk	ㅋ 키	L l	종성 ㄹ ㄹㅎ	Mm	ㅁ
Nn	ㄴ	Oo	ㅗ	Öö	ㅓ [ø]	Pp	ㅍ	Rr	초성 ㄹ [r] 종성 ㄹ	Ss	ㅅ	Şş	ㅅ	Tt	ㅌ
Uu	ㅜ	Üü	ㅜ [y]	Vv	ㅖ	Yy	ㅟ ㅟㅟ	Zz	ㅈ	â	ㅑ	î	히 [i]	û	ㅠ

- g k l 뒤에 e, i, ö, ü같은 전설모음(front vowel)이 오면 기 키 ㄹ이 된다.  
e, i, ö, ü의 정음표기 ㅓ/ㅗ/ㅓ/ㅗ는 모두 전설 ㅓ를 포함하니 기[ʝ] 키[cʰ] ㄹ[ɰ]로 변하는게 이해된다.
- /m, n, l, r/ 앞에오는 e는 [ɛ~æ]. ex) gelmek [gæʔmec/겔멕] öğrenmek [호랜멕] +子戌+ (本암합)
- Cㅓ Çㅕ Şㅅ는 IPA [dʒ ʧ ʃ]로서 실제단어 안에서 표기될 때는 주/조 추/초 수/소의 형태가 된다.
- 시각적으로 비슷한 İ/İ C/Ç G/Ğ J/Y S/Ş가 정음에서는 ㅡ ㅣ ㅓㅓ ㅓㅓ ㅓㅓ/ㅑ ㅑㅑㅑㅑ ㅅㅅ으로 대비된다.
- â î û는 예를 들어 kâr [kʰar/카·키아르]처럼 a i u 앞에 오는 자음의 palatalization(구개음화)를 뜻한다.
- 투르크체 알파벳 29자를 IPA나 정음으로 1:1로 변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투르크체 땅의 실제발음과 이들이 선택한 문자의 정서법(orthography)이 일관되게 일치하는지는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C vs Ç ㅓ ㅕ	G vs Ğ ㄱ ㅎ	J vs Y ㅓ -j	Ö vs Ü ㅓ ㅜ	S vs Ş ㅅ ㅅ
taksici [탁씨취] tercüman [태주만] sac [싸취]	sergi [쎄르기] gazete [가세테] belirgin [베릉긴]	jimnastik [쑤мна스틱] müjde [무수데] masaj [마싸취]	Özlem [오슬엠] sörf [쑤르프] şoför [쇼췌르]	su [수] simit [씨밀] istemek [이쓰테멕]
çok [출] maç [마취] parça [파르차]	büyüğüm [부위웸] yoğurt [요후트] dağ [당·다ㅎ]	yol [올] uyuyor [우유요르] kaykay [카이카이]	müzik [무시크] iyi günler [이이 쑤널으]	akşam [악삼] teşekkürler [테췌췌랄스]

<sup>79)</sup> ğ is usually silent and indicates a syllable break, e.g. değil [de.ɯ] (not). In final syllables after e and i, ğ = [j], e.g. eğri [ej.ɾi] (curve). Elsewhere ğ lengthens a vowel, e.g. bağ [ˈba:] (bond). In some dialects it is pronounced [uɣ]